

대학생의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

김현나¹

¹청암대학교 교수

The Effect of Leisure Experience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he Tendency to Perpetrate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im, Hyunna¹

¹Cheongam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eisure experience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heir tendency to perpetrate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when looking at the degree of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most people thought it was serious problems, but they also thought it can be forgiven. It was analyzed that screaming, swearing, or hitting objects, rather than direct violence, were not recognized as serious violence.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sub-factor of dating violence in order to analyze leisure experiences and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Leisure experi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violence, but it was analyz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trol behavior,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leisure experience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heir tendency to perpetrate dating viole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del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showed that leisure experiences are related to the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isure education to reduce the perception of violence and the tendency to violence as a preventive measure.

Key words : leisure experiences, smartphone addiction, dating violence,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주요어 : 여가경험, 스마트폰중독,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가해성향척도

이 논문은 2021년도 청암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un-Na

E-mail: hyunna73@naver.com

Received: February, 10, 2022 Revised: March, 13, 2022 Accepted: March, 21, 20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폭력행위로 인한 각종 범죄는 남녀연인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특히 이성 간의 교제가 활발한 대학생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성적, 비신체적 폭력은 우울, 다양한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사회적 기능 수준의 저하 등 건강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과 이석준 사건(이정현, 2022) 및 마포 데이트 폭력 황예진 사망사건(박은철, 2021) 등 과거 연인관계의 사랑싸움으로 생각되었던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9364건이던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63건, 2018년에는 1만 8671건, 2019년에는 1만 9940건으로 증가했다(경찰청, 2020).

Makepeace(1981)는 많은 수의 대학생이 낭만적인 교제기간 동안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대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경험이 사실이라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서경현, 2004; 유선영, 2000; Cate, Henton, Kovel, Christopher & Lloyd, 1982; Henton, Cate, Kovel, Lloyd & Christopher, 1983).

데이트 폭력에 대해 Puig(1984)는 교제 상대에 대한 폭력을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Carlson(1987)은 낭만적 관계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의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Sugaman과 Hotailing(1989)은 데이트 상황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이 이성교제 폭력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영숙(1998)은 이성교제 폭력을 결혼한 경험이 없는 남녀가 결혼 전 교제

하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유선영(2000)은 데이트 폭력을 결혼한 경험이 없는 남녀가 결혼 직전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데이트뿐만 아니라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선택과정과 관련된 낭만적인 남녀 간의 관계 내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정서적, 신체적,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이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이나 구속이며, 심리적 학대가 동반될 가능성도 큰 폭력 행동이다.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며,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크고,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폭력의 지속성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은 정신내적 요인, 가족요인, 대인관계요인, 스트레스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있다(Suganman & Hotailing, 1989). Lloyd, Koval, & Cate(1989)는 데이트 폭력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분류했으며, 자존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가족사 등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Riggs & O'leary(1989)는 데이트 폭력을 심리 사회적 변인(contextual variable)과 상황적 변인(situational variable)의 두 개의 이론적 모델로 설명했다. 심리사회적 변인은 어떤 사람이 데이트 관계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고, 상황적 변인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틀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공격행동을 만들어 내는데 너무 많은 변인을 상정하고 있어 설명이 쉽지 않다.

친밀한 관계에서 공격행동은 생애초기 배우자 폭력이나 아동폭력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Arias, 1984; Sigelman, Berry, & Wiles, 1984). 부모간의 폭력행동이 있었거나(김애정, 1993; 유선영 2000), 부모로부터 공격행동을 직

접 경험한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Foo & Margolin, 1995; Riggs & O'leary, 1996; Ryan, 1995) 특히 남성에게 그런 경향이 컸다(Demaris, 1987).

최근까지 우리나라 데이트 폭력의 연구는 Riggs와 O'Leary의 모델의 기본적인 부분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서경현(2009)은 데이트 폭력 연구에 있어 다각적인 변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물론 데이트 폭력의 증재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가 스포츠 참여는 청소년기 비행과 일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계순, 최희남, 이도웅, 1999; 서희진, 2003; 이운영, 권순재, 강기희, 2012).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며, 괴롭힘과 따돌림이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태경, 2017; 이세미, 2013; 이치균, 2007). 교정기관 내 비행청소년의 경우 영화감상 등 관람활동, 음악감상을 통해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했고, 자유롭게 여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와 여러사람과 함께 어울려 여가활동을 할 때 공격성이 낮아졌다(박종구, 2012).

박종구(2018)는 군대 내 여가활동이 폭력충동의 감소와 구타방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종구(2017)는 또한 군대 내 여가활동유형별 폭력성향 감소정도를 분석하였는데 명상/종교활동과 운동장 달리기가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김경주, 서광봉, 이철원(2013)은 교회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문제행동의 개선과정을 탐색하면서 여가활동의 예방적 접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를 통해 폭력의 증재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은 청소년 및 다양한 집단에서 폭력 가해행동과 폭력충동 성향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가활동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나 스마트폰이다.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3%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2020).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이나 청소년 비행정도가 높으며(박범기, 2021).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오프라인 비행은 물론 온라인 비행도 증가했다(조준범, 2017). 스마트폰 의존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행과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동록, 김도선, 조운오, 2021)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독서를 하는 경우보다 지위비행이 높았고, 휴일에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지위비행경험과 관련이 있었다(허준, 이운호, 2012)

선행연구 분석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행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과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가활동과 스마트폰 중독이 데이트폭력 가해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데이트폭력의 증재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학생들의 폭력인식을 분석한다. 둘째, 여가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천지역 전문대학 학생 150명을 편의적 표본추출방법으로 모집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2문항(성별, 연령), 여가경험 16문항,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경험에 대한 문항은 김지범 등(2016)이 활용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결과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시간에 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즐거움 정도, 여가활동 형태(함께 또는 혼자), 운동여부, 가족 저녁식사 정도, 가족 여가활동 정도 및 긍정적 일상 느낌, 부정적 일상 느낌,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표준화된 성인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활용하였다.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가지 구인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 성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n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를 김정란(1999)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을 활용

하였다. 갈등책략척도는 폭력가해에 대한 측정이거나 자기보고식 형태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데이트 폭력 가해, 피해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활용된 바가 있다. 갈등책략척도는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성관계 내에서 미묘하게 일어나는 통제행동(4문항)까지 포함시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제행동은 Stets(1992)의 데이트 상대 통제척도(Appraisal of Partner Control Scale)를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 사용하여, 남현미(2003)가 4점 척도로 수정한 것으로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여가경험의 경우는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즐거움 정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여가활동은 0.727, 여가즐거움은 0.963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척도의 경우 <표 1>과 같이 KMO는 0.775가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89.353($df=21$, $p<0.01$)로 나타났다. 요

표 1.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	가상세계지향	
일상생활장애9	.885	.178	.180	.083	.803
일상생활장애12	.840	.120	.204	.263	
내성11	.122	.897	.142	.082	.774
내성15	.174	.822	.284	.111	
금단7	.118	.212	.834	.120	.635
금단14	.253	.184	.781	.059	
가상세계지향2	.242	.140	.131	.947	1.000
아이겐값	1.670	1.625	1.498	1.009	
변량	23.862	23.212	21.400	14.418	
누적 변량	23.862	47.073	68.473	82.891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7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chi^2=289.353(df=21, p<0.01)**$

인분 결과 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 그리고, 가상세계지향의 4개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신뢰도의 경우 신뢰도 검증(Cronbach 알파검증)치가 보통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일상생활장애는 0.803, 내성은 0.774, 금단은 0.635, 가상세계지향은 1.000으로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의 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2>과 같다. KMO는 일반적으로 0.7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인분석 결과 성적 폭력, 심리적 폭력, 통제행동, 그리고, 신체적 폭력의 4개 상위변수가 도출되었다. 신뢰도 계수의 경우 성적폭력은 0.988, 심리적 폭력은 0.885, 통제행동은 0.791, 신체적 폭력은 0.694로 나타나 모두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결과도출을 위해 SPSS와 AMOS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 특성과 데이트

폭력 인식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값을 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기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2. 데이트 폭력 인식정도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인식하는 정

표 2.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성적 폭력	심리적폭력	통제 행동	신체적폭력	
성적폭력25	.972	.060	.124	.158	.988
성적폭력24	.972	.060	.124	.158	
성적폭력26	.972	.060	.124	.158	
성적폭력23	.937	.091	.141	.206	
심리적폭력2	-.009	.866	.326	-.023	.885
심리적폭력1	.000	.828	.265	.176	
심리적폭력4	.148	.801	.271	.030	
심리적폭력3	.209	.781	.030	.258	
심리적폭력5	-.109	.544	.543	.247	
통제행동14	.124	.101	.771	.052	.791
통제행동12	.153	.310	.764	-.033	
통제행동15	.027	.209	.729	.321	
통제행동13	.275	.229	.650	-.045	
신체적폭력18	.425	.119	.207	.711	.694
신체적폭력17	.412	.319	.023	.707	
아이겐값	4.256	3.320	2.788	1.393	
변량	28.373	22.132	18.584	9.284	
누적 변량	28.373	50.505	69.089	78.373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4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406.128(df=36, p<0.05)*

표 3.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여가활동정도	1																		
여가즐거움정도	.026	1																	
일상생활장애	-.041	-.197*	1																
내성	-.095	.021	.381**	1															
금단	-.036	.006	.454**	.489**	1														
가상세계지향	.036	-.215*	.454**	.304**	.308**	1													
스마트폰중독	-.067	-.111	.782**	.767**	.781**	.616**	1												
함께보내는시간	.228*	.309**	-.151	-.140	-.018	-.446**	-.214*	1											
운동여부	.119	-.040	-.110	-.131	-.110	.072	-.115	.101	1										
가족저녁	-.072	.184*	-.035	-.046	-.053	.105	-.026	.060	-.030	1									
가족여가	.125	.172	.045	-.022	-.069	-.062	-.030	.203*	.155	.241**	1								
주관적행복	.171	.159	-.121	-.196*	-.050	-.252**	-.191*	.222*	-.038	.208*	.135	1							
긍정적일상	.055	.157	-.050	-.036	.038	-.272**	-.081	.167	-.106	.144	.045	.540**	1						
부정적일상	-.032	-.189*	.239**	.137	.184*	.162	.244**	-.074	-.030	-.101	-.174	-.181	-.099	1					
심리적폭력	.132	-.069	-.001	-.046	.148	-.044	.025	.131	.017	-.068	.237*	.161	.068	-.064	1				
통제행동	.002	-.086	.088	-.119	.130	.003	.034	.223*	.125	-.073	.165	.121	.043	-.056	.574**	1			
신체적폭력	.092	-.200*	.078	-.097	-.017	.097	.008	-.110	-.032	.034	.041	.213*	.057	.102	.372**	.304**	1		
성적폭력	-.016	-.317**	.149	-.123	.105	.102	.069	-.176	-.050	.050	-.030	.210*	.028	.080	.129	.279**	.581**	1	

도는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를 통해 철수가 소리지르고, 욕설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해보니 <표 4>와 같이 영희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22명(90.3%)으로 대체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철수가 용서를 빈다면 용서하겠다는 쪽이 62명(45.9%), 용서 못한다는 쪽이 60명(44.4%)로 심각성의 인식 정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어떠한 예시에도 당연히 폭력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이 나타났으며,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를 목격했을 때는 46명(34.1%), 남자친구와 만나 늦은 귀가를 했다면 24명(17.8%)이 데이트 폭

력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영희가 철수처럼 행동했을 때, 철수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을 들었을 때 2가지 경우도 23명(17.0%)이 철수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소리지름이나 욕설, 다른 물건을 내리치는 행위 등의 폭력성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시나리오를 통한 데이트 폭력 인식 빈도분석 (명/%)

항목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				
	전혀 심각 안함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매우 심각함
영희 사상 인식	0(0.0)	4(3.0)	9(6.7)	71(52.6)	51(37.7)
철수 용서 인식	13(9.6)	18(13.3)	44(32.6)	26(19.3)	34(25.2)

표 5. 예시를 통한 데이트 폭력 인식 빈도분석 (명/%)

예시	당연 가능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
영희의 헤어자르는 협박	9(6.7)	49(36.3)	45(33.3)	32(23.7)
영희가 취해 술주정	10(7.4)	45(33.3)	48(35.6)	32(23.7)
영희도 철수처럼 행동	23(17.0)	56(41.5)	41(30.4)	15(11.1)
영희가 철수를 속인게 들통	15(11.1)	52(38.5)	45(33.3)	23(17.0)
영희의 모욕적인 말	18(13.3)	55(40.7)	34(25.2)	28(20.7)
다른 남자와 데이트 목격	46(34.1)	43(31.9)	23(17.0)	23(17.0)
가족친구앞에서 무시	22(16.3)	50(37.0)	37(27.4)	26(19.3)
친구못만나게 자기하고만 있어달라	7(5.2)	36(26.7)	58(43.0)	34(25.2)
약속시간에 늦은걸 당연시	12(8.9)	36(26.7)	54(40.0)	33(24.4)
오랜시간 연락 안받음	8(5.9)	47(34.8)	52(38.5)	28(20.7)
다른 남자와 친하게 자냄	11(8.1)	41(30.4)	56(41.5)	27(20.0)
영희가족이 철수를 무시	13(9.6)	50(37.0)	43(31.9)	29(21.5)
철수가족들의 무시 들음	23(17.0)	53(39.3)	34(25.2)	25(18.5)
영희 듣기싫은 잔소리	5(3.7)	38(28.1)	58(43.0)	34(25.2)
남자친구 만나 늦은 귀가	24(17.8)	41(30.4)	46(34.1)	24(17.8)

3. 여가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성향

여가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은 성적폭력, 심리적폭력, 통제행동, 신체적폭력 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여가경험은 여가활동정도, 여가즐거움정도, 함께하는 여가, 운동여부, 가족저녁정도, 가족여가정도, 긍정적일상감정, 부정적일상감정, 주관적행복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여가경험이 성적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형 F 값이 2.267($p=0.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즉 여가활동경험은 성적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항목을 중심으로 볼 때 여가즐거움 정도($t=-2.564, p=0.012$)와 주관적 행복($t=2.004, p=0.049$)이 통계적으로 성적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여가경험이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7>과 같이 모형 F 값이 0.704($p=0.7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경험은 심리적 폭력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여가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 중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와 같이 모형 F 값이 1.867($p=0.0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임이 검증되었다.

표 6. 여가경험이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Beta	성적 폭력		VIF	DW	R^2	F
				t	p				
(상수)	1.392	.473		2.944	.004				
여가활동정도	-.012	.083	-.015	-.144	.886	1.187			
여가즐거움정도	-.166	.065	-.299	-2.564	.012*	1.397			
함께보내는시간	-.022	.047	-.063	-.480	.633	1.748			
운동여부	-.089	.070	-.138	-1.270	.208	1.214	1.855	.288	2.267*
가족저녁 정도	.034	.037	.107	.933	.354	1.360			(.014)
가족여가 정도	-.001	.021	-.006	-.058	.954	1.280			
긍정적 일상감정	-.086	.138	-.081	-.626	.533	1.705			
부정적 일상감정	-4.227E-5	.092	.000	.000	1.000	1.215			
주관적 행복	.080	.040	.271	2.004	.049*	1.869			

* $p<0.05$, ** $p<0.01$

표 7. 여가경험이 심리적 폭력 성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Beta	심리적 폭력		VIF	DW	R^2	F
				t	p				
(상수)	1.402	.996		1.407	.164				
여가활동 정도	.023	.176	.015	.129	.898	1.187			
여가즐거움정도	-.065	.136	-.063	-.481	.632	1.397			
함께보내는시간	.065	.098	.096	.660	.511	1.748			
운동여부	-.129	.147	-.106	-.874	.385	1.214	2.133	.111	.704
가족저녁 정도	.010	.077	.017	.130	.897	1.360			(.754)
가족여가 정도	.073	.044	.206	1.648	.104	1.280			
긍정적 일상감정	.003	.291	.001	.010	.992	1.705			
부정적 일상감정	-.062	.194	-.039	-.318	.751	1.215			
주관적 행복	.056	.084	.100	.665	.508	1.869			

* $p<0.05$, ** $p<0.01$

표 8. 여가경험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통제행동					VIF	DW	R ²	F
	B	SE	Beta	t	p				
(상수)	1.666	.860		1.938	.056				
여가활동정도	-.290	.152	-.211	-1.914	.060	1.187			
여가즐거움정도	-.129	.117	-.131	-1.096	.277	1.397			
함께보내는시간	.173	.085	.275	2.048	.044*	1.748			
운동여부	.048	.127	.042	.376	.708	1.214	2.198	.249	1.867*
가족저녁 정도	.014	.067	.026	.216	.829	1.360			(.049)
가족여가 정도	.080	.038	.242	2.113	.038*	1.280			
긍정적 일상감정	.119	.251	.063	.475	.636	1.705			
부정적 일상감정	-.085	.167	-.057	-.506	.614	1.215			
주관적 행복	.025	.073	.047	.337	.737	1.869			

*p<0.05, **p<0.01

즉 여가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 중 통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함께 보내는 시간 ($t=2.048$, $p=0.044$), 가족여가($t=2.113$, $p=0.038$)가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가족과 여가활동 여부 등 여가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과 부합한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중심의 일상과 여가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넷째, 여가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 중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모형 F값이 1.251($p=0.0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한 회귀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즉 여가경험은 데이

트 폭력 중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인별로는 주관적 행복($t=2.358$, $p=0.022$)이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이 미치는 영향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모형 F값이 1.400($p=0.1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가경험이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VIF	DW	R ²	F
	B	SE	Beta	t	p				
(상수)	1.355	.624		2.173	.033				
여가활동정도	5.541E-5	.110	.000	.001	1.000	1.187			
여가즐거움정도	-.130	.085	-.191	-1.530	.130	1.397			
함께보내는시간	-.003	.061	-.008	-.055	.956	1.748			
운동여부	-.162	.092	-.205	-1.758	.083	1.214	1.899	.182	1.251
가족저녁 정도	.036	.049	.090	.732	.466	1.360			(.263)
가족여가 정도	.007	.028	.032	.270	.788	1.280			
긍정적 일상감정	-.226	.182	-.172	-1.241	.218	1.705			
부정적 일상감정	.044	.121	.043	.365	.716	1.215			
주관적 행복	.124	.053	.340	2.348	.022*	1.869			

*p<0.05, **p<0.01

표 10.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데이트 폭력 가해 성향					VIF	DW	R ²	F
	B	SE	Beta	t	p				
(상수)	1.495	.588		2.545	.013				
여가활동정도	-.066	.100	-.073	-.658	.512	1.101			
여가즐거움정도	-.156	.076	-.242	-2.062	.043*	1.243			
함께보내는시간	.054	.050	.130	1.091	.279	1.283			
운동여부	-.063	.083	-.084	-.758	.451	1.112			
가족저녁정도	.033	.043	.088	.756	.452	1.225	2.254	.156	1.400
가족여가정도	.047	.025	.216	1.897	.062	1.171			(.196)
긍정적일상감정	-.039	.166	-.032	-.237	.813	1.599			
부정적일상감정	-.057	.114	-.058	-.501	.618	1.204			
주관적행복	.075	.049	.217	1.529	.130	1.814			
스마트폰중독	.073	.069	.122	1.061	.292	1.191			

*p<0.05,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여가학의 차원에서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폭력인식을 보면 대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응답했지만, 직접적 폭력이 아닌 소리지름, 욕설, 물건을 내리치거나 하는 행위는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 폭력행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하예지, 서미경(2014)의 연구에서 폭력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폭력이 질투나 무시, 혹은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경우 폭력의 정당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의 폭력인식은 데이트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폭력정당화 정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행동이 급증한다(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염건웅, 구상미, 김래은(2020)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폭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나타내는 폭력인식은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경미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임채영 등, 2010). 또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허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동기, 2009; 백운현, 2010; 신소라, 김연수 2016; 이지연, 오경자, 2007).

차현미(2018)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교제중인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은 심리적, 신체적, 성적폭력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보다 심리적 폭력에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폭력이 중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언어적 폭력도 폭력임을 인식하는 데이트 폭력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가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의 4개 하위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가경험은 심리적 폭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통제행동과 신체적폭력, 성적폭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여가스포츠 참여와 학교폭력과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경(2017)은 여가스포츠 참여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스포츠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서산성(2014)도 스포츠 활동 참여자가

학교폭력의 요인인 괴롭힘, 따돌림, 신체폭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세미(2013)의 연구에서도 학교스포츠 클럽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이선아(199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여부와 여가활동유형이 비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포츠활동 참여 청소년은 잠재적 비행이 낮게 나타났으며, 사교활동 참여 청소년은 잠재적 비행이 높게 나타나는 등 참여활동유형과 비행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었다. 허준 등(2012)도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유형별 비행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종구(2012)도 청소년 교정기관 여가프로그램 유형과 여가선택주체, 여가참여 형태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여가활동 환경의 경우 비행이 연관성이 있었다. 성인감독자가 결여된 여가환경,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수업환경 등이 비행과 관련된다는 것이다(조수영, 2015). 따라서 비행 및 폭력성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여가활동을 탐색하고, 적절한 여가환경을 동반한 여가프로그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이 데이트폭력 가해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혜린, 김재엽, 류원정(2021)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부모 대상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진오(2019)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을 매개하는 주요변인이라고 설명했으며,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미경, 김진주, 강균경, 2018).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채팅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신나민, 안화실, 2013). 대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공격성을 높이며, 사회적지지를 높이면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선숙, 2015).

본 연구에서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이 데이트폭력 가해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가와 폭력 성향과의 연관성은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데이트 폭력과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여가와 데이트 폭력이라는 변수와의 연관성이 낮거나 데이트 폭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데이트 폭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여가와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경험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요인은 여가유형,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만족 등에 다양한 변인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데이트 폭력 인식정도를 보면 심각성은 인지하지만 용서하겠다는 인식도 높았다. 다양한 사례를 가정한 경우 직접적 폭력이 아닌 소리치름, 욕설, 물건을 내리치거나 하는 행위는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가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의 4개 하위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가경험은 심리적폭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통제행동과 신체적폭력, 성적폭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학생의 여가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여가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가유형 및 인식 등 다양한 변

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즐거움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여가활동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여가활동과 여가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여가 실태를 반영한 실제적인 여가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제 여가는 개인이 선택하는 취미활동의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생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의무교육 중 여가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2020). 2020 경찰백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
- 김경주, 서광봉, 이철원(2013).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과정 탐색: 교회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1), 63-74.
- 김동기(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6(6), 135-159.
- 김동록, 김도선, 조윤오. (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 1-23.
- 김예정(1993). 특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김예정(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2):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 187-202.
- 김예정, 김득성. (1999).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 1-15.
-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운석, 최슬기(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
- 김태경(2017). **중학생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자존감과 사회성 및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2003).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박계순, 최희남, 이도웅(1999). 스포츠댄스가 청소년기 자기존중감과 잠재적 일탈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2), 131-144.
- 박미경, 김진주, 강균영. (2018). 융복합시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유형 간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111-118.
- 박범기(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5(2), 31-51.
- 박선숙(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38), 219-242.
- 박은철(2021). **故황예진씨 CCTV, 사건당일 영상 참혹**. cbs뉴스, 11월 4일.
- 박종구(2012). 여가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사회재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2), 3-24.
- 박종구(2017). 교도소 여가활동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관광학연구**, 41(5), 205-220.
- 박종구(2018). 군대 여가활동이 장병이 복무염증, 심리적 탈진과 폭력충동의 감소, 구타방지에 미치는 효과측정. **대한관광경영학회지**, 33(3), 67-87.
- 백운현(2010). **고등학교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의 경**

- 협과 데이트관계의 지각. **청소년학연구**, 17(1), 1-32.
- 서경현(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1), 147-162.
- 서경현(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4(4), 699-727.
- 서산성(2014). **스포츠 활동 참여가 중학생들의 사회성, 학교적응 및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서희진(2003). 청소년의 스포츠참가와 또래관계 및 일탈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3), 143-152.
- 신나민, 안화실(201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현황 및 피해 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4), 1-21.
- 신소라, 김연수(2016).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24(2), 5-32.
- 양혜린, 김재엽, 류원정. (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공격성이 부모 대상 폭력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도움요청 체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92.
- 염건웅, 구상미, 김래은(2020). 남자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9), 164-172.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이성교제 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선아(1994). **여가활동 참여여부 및 유형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세미(2013).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건국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2.
- 이운영, 권순재, 강기희(2012).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가 스트레스와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4), 36-48.
- 이정현(2022). 김병찬, 이석준 사건 이어 또 비극.가해자분리실패. **연합뉴스**. 2월 15일.
- 이지연, 오경자(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2(4), 433-450.
- 이치균(2007). **스포츠 참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심리적 특성 차이**. 성균관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조수영(2015). **청소년의 여가활동에서 비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청소년문화포럼**, 44, 97-124.
- 조춘범(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비행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317-345.
- 차현미(2018).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 수준이 스마트폰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최진오(2019).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및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의 구조적 관계: 스마트폰과의존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32(4), 53-78.
- 하예지, 서미경(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 허준, 이윤호(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8(2), 213-240.
- Arias, I. (1984). *A social learning theory explic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hysical aggression in intimate heterosexual relationships (spouse abuse, marital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Arias, I., & Johnson, P.(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3), 298-307.
- Carlson, B. E.(1987).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8(1), 16-23.
- Cate, R. M., Henton, J. M., Kovel, J., Christopher, F. S., & Lloyd, S.(1982). Premarital violenc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1), 79-90.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Foo, L. & Margolin, G.(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351-377.
- Henton, J., Cate, R., Kovel, J., Lloyd, S., & Christopher, S.(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Lloyd, S., Koval, J., & Cate, R.(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ger, 127-142.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 Puig, A.(1984). Predomestic strife: A growing college counse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268-269.
- Riggs, D. S & O'leary, K. D.(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and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rager Pub.
- Riggs, D. S & O'leary, K. D.(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K.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6), 530-548.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65-177.
- Straus, M. A., Hamby, S. L., Boney-MaCoy, S., & Sugarman, D.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ugaman, D. B., & Hotailing, G. T.(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t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p. 3-30). New York Prager.